

“한국 33관음성지 순례했어요”

日 관광객 10人 첫 회향... OECD관광위, 템플스테이 문화관광 성공사례 소개

템플스테이가 순풍에 돛을 달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있다.

최근 OECD관광위원회가 발간한 <Impact of culture on tourism, (2009.1)>에 템플스테이가 문화관광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며 이어 '한국 33관음성지 순례'를 모두 순례한 첫 일본인 10명이 탄생했다.

<Impact of culture on tourism>는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잠재성과 경쟁력이 높은 특화된 국제화 관광 사업으로 소개했다. 특히 템플스테이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와 민간간관 사이의 혁신적 관계를 꼽았다. 관-민 협력은 공적 자금·기술·인력 도입, 관광목적지로서 사찰 전통문화 흡인력 증대, 지역사회 경제적 이익, 민-관 신뢰 회복 등으로 상호 이익을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템플스테이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한편 11월 11일에는 한국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첫 관광객들이 탄생했다. 지난 봄, 여름에 이어 한국을 3번째 방문한 순례단은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순례단은 마애불입상에서 반야심경 독송, '첫 순례완성자를 위한 기념식'을 봉행했다.

'한국33관음성지순례'는 2008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가 기획한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일본 순례객들이 11월 11일 서울 도선사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업으로 관-민 협력 대표 상품이 다. 사업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문화 전파, 외국관광객 순례활동, 양국의 문화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혜자 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주경 스님, 김포 옹화사 주지 지관 스님,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 김봉기 본부장과 순례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혜자 스님은 "일본의 관음성지를 다 돌고 한국 관음성지를 순례한 참가자들의 신심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는 도선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108사찰 순례에도 도전해보라고 권유하고 33관음사찰의 관세음보살상의 명호가 적힌 33개의 염주알과 108사찰 순례관련 자료 등

을 선물했다. 이어 주경 스님은 종훈 스님을 대신해 "33관음성지사찰순례 사업 시행 1년 동안 참가한 1만 5000여 명 가운데 최초 순례 완성자가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다.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김봉기 본부장은 "본 사업은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형태로도 의미가 크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알찬 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회향식에 앞서 마지막 순례지에 도착한 순례단은 대학 수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 학부모들의 기도하는 모습, 수천 포기의 강장을 담그는 진풍경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도 했다. 부부가 함께 순례에 동참한 가계 오지 미찌오 씨는 "33곳을 순례하면서 익힌 한국 반야심경이 이제 익숙하다. 3차례의 방한과 33곳을 순례하며 감동과 실망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미찌오 씨는 "한국 관음성지 33곳을 방문한 이유는 원래 '나를 찾기 위해서'였다. 순례를 회향하고 보니 한국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이해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소감했다. 미찌오 씨는 "33관음사찰 순례자는 고행자가 많다. 혜자 스님이 말씀한 108사찰 순례를 하려고 생각하니 내 다리도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수행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행자를 위한 배려는 필요하다"며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고야마 유키코(64)씨는 "일본 관음성지를 다 돌고 나니 일본에 전래된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은 곳으로는 백양사를 꼽았다. 그녀는 "벙붕처럼 둘러싸인 산속에 위치한 백양사에서 한국 전통 선수를 이 끌어오신 스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훌륭한 체험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전통사찰음식 정체성 확립 시급”

불교여성개발원 주최 사찰음식 세미나서 선재 스님 주장

수입 식자재, 외국인 공양주의 정체불명 사찰음식 등으로 전통사찰음식의 정체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월 9일 불교여성개발원(이사장 이은영)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사찰음식과 채식의 대중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은 "국산 식재료 구입의 어려움과 외국인 공양주들이 만드는 국적불명의 사찰음식, 일반인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요구와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대응책으로 △사찰의 소임자 및 공양주 교육을 위한 사찰음식 교육기관 설립 △불우공양의 활성화 등을 통한 사찰음식의 가치관 보급과 절용을 강조하는 사찰음식의 정신 확산 △사찰음식의 검수 및 인증제 도입 △사찰음식 전문점 개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재 스님은 주제발표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안'에서 "사찰음식은 포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혜, 건강, 수행의 관점에서 대중화시켜야 한다"며 "빠르고 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현대인의 건강을



참가자들이 세미나와 함께 열린 전통사찰음식 전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해치고 있다. 채식요리가 육식요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담, 조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채식요리에 시간을 할애할 때"라고 강조했다.

적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은 주제발표 '전통음식문화로서의 사찰음식'에서 "사찰음식은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로서 온 인류와 세계에 자랑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며 "한식의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님은 세계 언론에 비쳐진 한식을 분석하고 "일반 한식은 향신료, 소금, 조미료 등으로 노출되기 쉬운 점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인 사찰음식으로 중간급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스님들은 경을

는 삼장에 근거해 전통 사찰음식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채식 사업 대중화를 위한 여성부와 불교여성개발원의 공동협력사업인 채식전문조리사의 의미와 전망도 진단됐다.

남해정 채식조리사과정 센터장은 "일자리 제공과 소외계층 대상 채식요리 제공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는 크게 하고 있지만 채식조리사의 위상과 역할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센터장은 "채식조리사 파견요청에 대한 의도와 실행의지를 평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형식 마련, 기존 조리사와의 역할 분담으로 인한 갈등을 지체하고 '전문성과 자신감 부여'를 위한 홍보기간과 교육기간을 확보하고, 파견기관의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채식요리사에 대한 수요 창출과 함께 사찰음식전문조리사 자격증 제도 도입과 사찰의 공양주, 사찰음식전문점 등에 전문 조리사 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연 기자

생명사랑 특강·걷기명상 등 ‘풍성’

불광사, 22일 ‘생태문화 한마당’ 개최

세대와 종교를 초월해 어린이·청소년들이 '생명과 평화'를 노래한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11월 22일 불광사와 석촌호수 일대에서 '제2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태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생태와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한마당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의 생명사랑 특강, 송파나루공원과 불광사 일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채널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된다. 또 불광자원봉사센터 불광생태지킴이들이 진행하는 '휴+치유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걷기명상, 나무목걸이 만들기, 나무와 하나 되는 나, 주변 환경 살펴보기 등을 실시한다. 그밖에도 생태사진 전시회, 아나바다 벼룩시장, 전통차 나누기, 빙그릇 나눔 공양 등이 진행된다.

오후 1시 반부터는 불광사 보광당 특설무대에서 생태한마당이 실시된다. 이날 공연에는 기독교 청소년 밴드인 '청개구리'가 불자 청소년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를 노래한다.

이상연 기자

신행계시관

- 일반 재가자 동반거 수행=천태종 종본산 구인사 및 전국 말사는 12월 24일~2010년 1월 23일 일반 재가자 동반거 할 수 도를 실시한다. (043)423-7100
- 쇠잔진중수행=서울 길상사는 11월 21~22일(초심반), 11월 28~29일(구참반) 주말 수련회를 실시한다. 사찰 생활, 예불, 공양 등 기본 습의를 시작으로 불교상식 공부, 쇠잔의 및 쇠잔 집중수습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5만원으로 선착순 40명 접수. (02)3672-5945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독송=서울 도선사는 매일 첫째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독송기도를 실시한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2)993-3161
- 철야참선법회=봉화 촉서사는 11월 21~22일 촉서사 대웅전에서 철야참선법회를 실시한다. 무여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참선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54)672-7579

“수행 통해 나 바꾸면 운명도 바껴”

길벗, 9일 법륜 스님 초청 즉문즉설 개최

"번뇌와 욕망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럼 들고 계세요."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사친)의 살아있는 법문에 대응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정토회 방송, 영화, 연극, 문화 예술인들의 마음 공부하는 모임 '길벗'은 11월 9일 여의도사학연극회관에서 법륜 스님 초청 즉문즉설이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는 배우 남일우, 배종옥, 김여진, 김유석씨, 노희경 작가, 표민수 PD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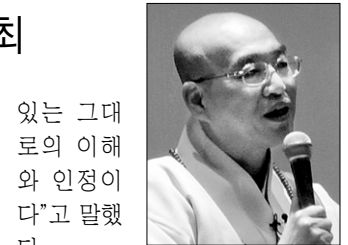
황을 이뤘다.

30여개의 질문에는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 '포식증에 걸린 딸을 치유하는 법'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진정한 자유와 사랑' '운명이란 무엇인가' 등의 문제부터 진로, 취미, 연애사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법륜 스님은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일반인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참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일반인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만 참사랑은 상대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해와 인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삶의 고통이 따를 때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한다. 나를 바꾸는 것은 '수행'에 답이 있다.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전의 사고와 행동, 습관이 만든 운명이다.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나를 바꾸면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세계 평화 기원 한마당

태국 수도 왓벤사 사원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공개 · 의륜 서주범 대종사 제19대 전국일불문도중앙회 회장 취임

2009년 12월 1일(화요일) 오후 1시 ·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취지문

인류의 등불이신 세계법왕 일불 서경보 존자님은 세계불교법왕정을 설립하시고 초대 법왕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장, 대학선원장, 조계종원로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국가보위입법위원 등 많은 직책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불문도중앙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일불산정대학원, 일불신문사 등 많은 불교단체를 설립하였고 우리민족의 숙원인 남북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원 하기위해서 40여년 전부터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 마라도에서부터 최북단 통일전망대에 이르기 까지 8백여개의 평화통일 기원비를 세웠으며, 세계각국 유명대학교에서 문학, 철학, 종교학박사 등 126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불교포교를 위하여 1천 40 종류의 저서를 냈으며 국내외적으로 6천7백여명의 제자를 두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불교포교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편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2회 연속 올랐으며 제17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세계불교사에 빛나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일불 존자님의 제자들이 모인 단체는 전국일불문도중앙회에서 한국불교단체가 동참하는 평화 한마당을 마련하고 전국일불문도중앙회 제19대 회장 의륜 서주범 대종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취임식과 아울러 화합 단결로 불교발전을 이룩하고 불교정도를 구현하고자 세계평화기원 한마당 대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전국일불문도중앙회 제19대 회장 의륜 대종사 취임을 계기로 일불 범법님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정신 사상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종흥은 물론 전 세계 불교문화의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 설것을 부처님전에 서원하며 이 뜻을 응징하여 우리의 결의를 단결하여 알려고자 한국불교 전체 종파를 초월하여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회장 의륜 서주범 약력**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저서 : 알기쉬운 불교의 40여종 / 전국 순회포교 백일
- **동참안내**
교계 각 종단의 고승대덕 스님들과 각 불교단체 임원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요일) 오후 1시 입장 (오후 2시 - 5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 **규 모 : 1천여명 뷔페식 만찬**
- **법요식 : 평화기원 메시지 전달 / 회장 취임 인사**
- **시 상 : 불교계에 공헌하신 분 (각 종단, 단체 추천에 의한)**
- * 태국 수도 왓벤사 사원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공개 / 불자 연예인 공연
- **문 의 : 전국일불문도중앙회 02)777-0901 / 각 종단 및 사암**
회장 의륜 대종사 011-352-7751 / 기획위원장 김소부 011-356-3427 / 사무총장 서병열 010-6253-4936
- * 불교TV와 연합불교방송에서 함께 합니다. (특집 프로그램 제작)

세계 평화 기원 한마당 봉행위원회

대 회장 석월호 대종사 [(사)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 전국일불문도중앙회 고문 / 저서 : 월호 박팔봉 설법집 등 10여종 출간]